

# 돌봄·자립지원 결합된 주거모델 개발 시급



장애아동 가족이 아프다

## <하>가족·전문가가 말하는 대책

발달장애를 둔 가족들의 뒷바라지는 기약이 없다. 병들고 늙어가는 어머니,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은 언젠가 세상에 홀로 남겨질 자녀 걱정뿐이다. 발달장애는 사회에서 자립생활을 목표로 하는 다른 장애 유형과는 달리 전 생애에 걸쳐 부모와 가정의 돌봄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가정 절실히 바라는 정책은 무엇일까.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 모델=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현재 중증발달장애인은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고, 발달장애인들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립생활 지원 주택' 사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참여자의 생활패턴이 무시되고 개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데다 상주인력도 없기 때문이다.

한 공간에 돌봄인력 입소 필요  
지역사회 주거센터도 절실  
광주에 전문병원 한 곳도 없어  
평생교육기관도 확대운영돼야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주거사업 지원단 구성과 함께 현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의 자원생활주택이나 영국의 엑스트라 하우스와 같은 해외 선진국 주거 유형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연대가 말하는 선진국 주거사업의 특징은 돌봄과 지원의 결합형이다. 대표적 모형은 호주 클러스터 하우스로, 수직적 구조의 건물을 매입해 한 공간 안에 참여자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숙소를 배치하는 것이다. 또 발달장애인이 자립에 앞서 지역사회의 주거환경을 체험해볼 수 있는 지역사회 주거체험센터 설립도 절실하다고 말한다. 주거

체험센터는 참여자가 입소하는 동안 가족들에게 온전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장점이다.

특히 부모연대는 주택지원사업 등과 같은 정책 개발과 돌봄·자립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잦은 교체 문제를 꼬집으면서,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 전문가 채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현재 광주시에 발달장애인의 증상을 미리 예견하고 전문가적 치료를 위한 필요한 공적 지원기관은 없다.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대부분 복지시설 이용을 거부당하고, 이로 인해 가정에서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가정 내 돌봄이 이어지면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 있다. 중증 발달장애인의 증상을 미리 예견하고 전문가적 치료를 위해서는 행동발달증진센터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부모연대에 따르면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관련 예산은 1억 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기저기서 거부당하기 일췌인 중증 발달

장애인들의 평생 교육은 생각할 여력조차 없다. 단순 돌봄과 보호에만 주력하는 형태를 넘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확대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못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들은 전적으로 부모가 케어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모들 사이에는 '졸업이 바로 낭떠러지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가족만의 힘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길 요구했다.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원은 "중증 발달장애인은 평생 돌봄이 필요하다. 부모들이 요구하는 지역사회 내 돌봄을 위해서는 우선 발달장애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며 "또 장애인 관련 정책은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지역사회 내에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 북구 구민상 후보자 공모 경제·봉사 등 5개 부문 30일까지

광주시 북구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기여한 모범구민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북구는 오는 30일까지 지역사회 발전에 위해 노력한 주민을 대상으로 '제13회 북구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9일 밝혔다.

이번 제13회 북구 구민상은 지역경제, 지역사회봉사, 문화예술체육, 효행, 장애인 5개 부문이며 각 부문별 1명씩 선정한다.

후보자는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장 또는 지역주민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공적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북구청 주민자치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노래연습장 QR코드 찍고 들어가세요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출입시 QR코드 시행 도입을 하루 앞두고 9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지역 코인노래연습장에서 북구청 영상음반팀 직원들이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자사고 광양제철고 일반고 전환 추진... 학부모 등 지역사회 반발

포스코가 설립한 포스코교육재단이 산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광양제철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중·고를 오는 2025년 3월 일반 중·고교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기는 학교로 지목된 자사고와 국제중의 일반 중·고교 추진이 잇달아 진행되고 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국단위 자사고인 광양제철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교육재단과 광양제철고 관계자들은 최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을 만나 광양제철고의 일반고 전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제철고는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자사고로 지난해 6월 자사고로 재지정 돼 올해 3월부터 5년간 자사고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광양제철고의 일반고 전환은 포스코가 포스코교육재단 출연금을 지속해서 줄이면서 이미 예고했다. 포스코의 재단 출연금은 2012년 385억원 수준에서 2019년에는 180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올해는 120억원, 내년에는 70억원으로 지속해 감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산하 자사고인 광양제철고와 포항제철고의 일반고 전환과 등 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측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 학부모와 학생, 교육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내부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광양시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자사고 지위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정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 방침에 따라 2024년이면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라며 "시는 그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과기원 항바이러스 연구센터 설립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 대응

수행할 예정이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가 감염질환 유발성 신종 바이러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9일 개소한 항바이러스 센터는 '코로나19'와 메르스 같은 감염질환 유발성 신종 바이러스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코어 그룹을 만들어 방호, 진단, 치료 등 최고 수준의 항바이러스 연구를 위해 설립했다.

센터의 주요 연구 범위는 감염질환 유발 바이러스 방호, 진단 및 백신, 치료제 등을 개발·연구하는 것으로, 나아가 감염질환 유발 바이러스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부분에서도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분야별 융합과 전략적 연구를 통해 항바이러스 연구모델 구축과 대응 기술개발을

특히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 대응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새롭게 출현하는 신종 바이러스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바이러스 연구센터는 항바이러스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전문가협의체도 구성했다.

박성규 센터장은 "지스트 항바이러스 연구센터는 전통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분야별 융합과 전략적 연구를 통해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면서 "바이러스 연구모델 구축과 대응 기술개발로 감염질환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나아가 치료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항바이러스 연구의 선제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교육청 포스트 코로나 테스크포스팀 구성

'에듀테크' 정책 마련 나서

전남교육청이 포스트 코로나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한 교육정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9일 '포스트 코로나 TF'를 구성해 코로나19 이후 전남 에듀테크(Education+Technology) 정책 마련에 나섰다. TF는 5가지 정책과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실태 파악과 교육 주체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한다.

도 교육청은 TF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남의 미래 에듀테크 기반을 확충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한다.

이런히 전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전남 에듀테크 정책을 지속해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방준성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와 AI 교육'에 대해, 8일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

원(KRRIS) 장상현 본부장의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해 특강과 자문을 들었다.

TF는 ▲학교 현장 원격교육 인프라(플랫폼) 구축 ▲학교 현장 지원 콘텐츠 개발 ▲에듀테크 활용 수업 개선 ▲교사역량 강화 연구 ▲원격교육 격차 해소 방안 등 5대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TF는 5가지 정책과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실태 파악과 교육 주체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한다.

도 교육청은 TF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남의 미래 에듀테크 기반을 확충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한다.

이런히 전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전남 에듀테크 정책을 지속해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방준성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와 AI 교육'에 대해, 8일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조선대 '네이처 인텍스' 호남·제주권 사립대 1위

대학·연구기관 연구경쟁력 지표

조선대학교가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서 발표한 '2020 네이처 인텍스 교육 기관 순위'에서 광주와 전남북·제주권 사립대 1위를 차지했다.

네이처 인텍스는 네이처가 발표하는 대학·연구기관의 연구경쟁력 지표다. 2019년 국제 유력 학술지 82개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의 소속기관, 공동 저자의 기여도, 학문분야별 가치지 등을

분석해 연구성과를 객관적 수치로 제시한다.

조선대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2020년 국내 순위에서도 호남 사립대 1위를 유지했다. 특히 네이처 인텍스에 따르면 조선대학교의 2019년 연구경쟁력은 2018년보다 1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동 총장은 "대학의 연구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수목장 허가·운영 전문기업

# 수목장 투자

## 신규 수목장 투자

### 2,000만원부터 투자 가능

**예상수익** 2,000만원 투자로 연 24% 수익  
평생 소득 구축, 30명 한정투자

수목장 44.2%

화장 후 가장 선호하는 장례법

남골당 37%

산소 4%

기타 14.8%

수목장 14%

실제 이용하는 장례법

남골당 74%

기타 12%

자료 : 보건복지부

노후 준비 +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장례준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

## 친환경 장묘문화(주)

전화 **070-5172-3090**  
H·P **010-8431-5199**